

진학·진로 교사들과 함께하는 2013 대입 스테디

②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적위주 선발을 지양하고 대학의 건학이념과 인재상, 학업 수행 능력, 교육환경, 학습과정, 소질·적성, 인성, 창의성 및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 전형에서는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활동기록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학생을 선발한다.

내게 맞는 전형·대학별 인재상 찾아라

고교생활 성실성 평가... 성적향상 추이 중요 1학년때 진로 결정 2학년때 체계적인 준비

◇선발지원 대목 증가=시험 6년째인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전체 모집 인원은 총 4만3960명이다. 2012학년도 4만 2163명에 견줘 소폭 증가했다. 수시모집 정원도 4만1734명으로 전년도 3만2851 명에 비해 8883명 증가했고, 정시모집 정원은 2226명으로 전년도 9312명에 비해 7086명 감소했다.

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입학사정관 전형은 단시일 내에 준비하는 것은 무리다. 우선 1학년 때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특기·적성을 파악,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2학년 때는 희망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결과물을 산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인원은 2012학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대학을 포함한 30개 선도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비율(수시 기준)은 36.2%이다. 특히 한양대(23.0%→40.9%), 서울대(64.7%→81.2%), 서울시립대(12.9%→23.9%), 성균관대(18.7%→27.8%), 경희대(21.0%→25.6%) 이화여대(18.5%→22.6%)는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전공과 연관된 교과 심화 학습 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이라면 특정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 자신의 수준에 맞는 보고서나 소논문 등을 준비 해두면 도움이 된다. 학교 생활의 대부분은 교과 활동이므로 교과 성적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

◇전형 유형은 간소, 방법은 다양=매년 수험생과 학부모는 전형 유형이 지나치게 많아 특성과 장점에 맞는 전형을 찾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입시당국은 이에 따라 전형유형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입학사정관전형도 일반 학생을 주로 선발하는 전형과 특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모아지고 있다.

입학사정관전형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건학 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므로 지원 대학 및 지원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충족하는 학생이 지원해야 유리하다.

특정 자격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일반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이 대표적인 선발방식으로 자리잡어 추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전형이라도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므로 자신이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하다는 점을 자기소개서에서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전공 관련 교과 우수성과 비교과 활동의 참신성 및 독창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반면, 전형 방법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교과·비교과)와 서류 및 면접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2013학년도 전형에서는 학생부 비교과와 서류를 바탕으로 선발하는 전형(성균관대 성균인재, 한양대 브레인 한양), 강의 리포트를 평가 요소로 하는 전형(고려대 OKU미래인재) 등과 같이 평가 요소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 2013학년도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요강

Table with columns: 대학, 주요 전형, 모집 인원, 기타전형 모집인원, 특별전형, 모집 인원. Lists various universities and their admission criteria.

◇교과성적 꼼꼼히 챙겨야=교과와 비교과 활동 모두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이 주된 전형으로 굳어지

구하는 인재상을 충족하는 학생이 지원해야 유리하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대개 전형유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전형 유형을 찾기 위해서는 희망 대학의 전형 유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령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전형'이 리더십, 국제화, 과학, 문화 인재 선발하는 전형이라면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은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 선발하는 전형인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전형이라도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므로 자신이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하다는 점을 자기소개서에서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전공 관련 교과 우수성과 비교과 활동의 참신성 및 독창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눔 입시컨설팅 연구회〉

■ 나눔 입시컨설팅 연구회

송덕고 한철민(사진) 교사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지역 고교 진로·진학교사 20명으로 구성된 연구회이다. 교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입시정보·진로자료 등을 개발, 보급해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다.



“학교교육 질 높인다” 좋은 학교 박람회

충청·호남지역 '2012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가 4일 3일간의 일정으로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개막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재대국'으로 가는 긍정의 변화란 주제로 개최한 이번 박람회는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대 '先취업-後진학' 지원 나선다

교과부 특성학교 졸업생 특별전형 지원 대학에 선정

광주대가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광주대 등 4년제 대학 14개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 등 전문대학 4개교 등 총 18개교를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재직자 특별전형이란 특성화·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이 산업체에 취업한 뒤, 근무 경력 3년 이상이 되면 수능 대신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대학에 따라 5000만~1억원씩 총 12억원이 지원된다.

광주대는 이번 사업선정에 따라 2013학년도 신입생에게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선행학습경험가계도 입학과 주말 및 야간교육 실시로 내실있는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또 현재 재테크자산관리학과 중심의 '선취업 후진학' 운영을 2014학년도부터 산업기술평가부 중심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재정지원은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핵심요소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활성화 계획에 따라 올해 신설된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대학 학사운영이 학령기 학생 중심에서 성인 재직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나아가 후진학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엔 선정된 대학은 경기과학기술대학·영남이공대학·제주한라대학·창원문성대학 등 전문대학 4개교, 광주대·경북대·경상대·광주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한경대·건국대·국민대·동덕여대·명지대·중앙대·한양대 등 4년제 대학 14개교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박해천 조선대 교수 안전경영과학회 학술상

박해천 조선대 교수(공과대학 산업공학과)가 최근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도 학술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의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수상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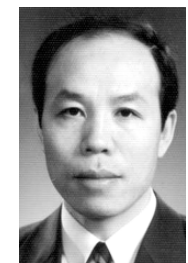
학술상 수상 논문은 박 교수를 비롯해 4명이 공동 집필한 논문 'IPA분석 기법을 통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지원 서비스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광주지역 건설현장 근로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이다.

현재의 산업안전법규는 높아진 사회적 관

심도에 비해 근로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질적 평가가 간과된 경향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추어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책들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시킬 경우 비용과 시간투자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박 교수의 연구는 중요도-만족도(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통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지원 서비스 정책에 대한 작업자들의 요구를 파악, 향후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지원 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한 방



법을 제시했다. 한편 1999년 출범한 대한안전경영과학회는 안전경영에 관한 학문과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안전기술 및 관리기술 진흥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계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7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Joy!!'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개업·성업' (New Business/Success), '태화오리탕' (Tae-hwa Ori-tang), '오리명가' (Ori-myeong-ga), '계절따라' (Seasonal), '유니나비타민카페' (Yuni-nabitamin Cafe), '반도여행사' (Bando Travel Agency), '피부의꿈' (Skin's Dream), '쌀도·소매' (Rice/Sale), '기담철학원' (Gidam Cheolhakwon), '태산산업개발' (Taesan Industrial Development), '이연안과의원' (Iyeon-an Ophthalmology Clinic), '그림그리는세상' (Drawing the World), '허준이비인후과' (Heo-jun ENT Clinic), '선정미용실' (Seonjeong Beauty Salon), '유아이헤어' (You-ai Hair), '대동철학연구원' (Daedong Cheolhakwon), '천수사(백마장군)' (Cheon-su-sa), '두암식당' (Du-am Restaurant), '벽산태권도' (Byeok-san Taekwondo), '오리궁뎅이화점점' (Ori-gungdeung-hwajeom), '(주)한마음모아' (Han-ma-eum-mo-a), '대명근로자대기소' (Daemyeong Workers Waiting Room), '월계정' (Wolgyejeong), '굿데이밥스' (Good Day Baps), '황태콩나물국밥' (Hwang-tae Kong-nam-guk-bap), '초록에각화직영점' (Chorok-e-gak-hwa), '왕대박삼순이' (Wang-dae-bak-sam-sun-i).